제12호 2013 봄
College of Humanities Newsletter

# 인문대 소식

**발행처** 부산대학교 인문대학 | **주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동 산 30번지
**발행일** 2013년 4월 15일 | **전화** 051-510-1501 | **발행인** 김성진 | **편집인** 윤일환
**디자인/제작** 비온후(051-645-4115 / beonwhobook@naver.com)

## 학사 일정

| | |
|---|---|
| 4.8(월) | 2012 후기 학위청구 심사용논문 제출 |
| 4.22(월)-26(금) | 중간고사 |
| 5.15(수) | 제67주년 개교기념일 |
| 5.21(화)-23(목) | 여름계절수업 수강신청 |
| 6.12(수)-14(금) | 여름계절수업 등록 |
| 6.12(수)-18(화) | 기말고사 |
| 6.17(월)-8.12(금) | 2학기 국·영문교수계획표입력 |
| 6.19(수) | 하기휴가 |
| 6.19(수)-7.16(화) | 여름계절수업 |
| 7.2(화) | 2012 후기 학위논문 심사결과보고서 및 최종논문 제출 |
| 8.13(화)-20(화) | 2학기 수강신청 |
| 8.22(목)-27(화) | 2학기 재학생 등록 |
| 8.23(금) | 2012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

## 2013 입학식

Contents

02 인문대 소식 03 미리내 단상 04 학과/연구소 소식 07 동문소식/교수동정 08 신간소개

## 2012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

2012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이 2월 22일(금) 오전 10시 30분, 경암체육관에서 열렸다. 이날 학위수여식을 통해 학사 3265명, 석사 1447명, 박사 245명이 배출되었다. 인문대학에서는 학사 236명, 석사 74명, 박사 11명 등 총 321명이 학위를 받았다. 이날 행사는 학사보고, 총장 학위수여식사, 부산광역시장 및 총동문회장 축사, 학위기와 표창장 수여, 축하연주, 교가제창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각 단과대학 수석졸업자에게 최우수상이 수여되었는데, 인문대학에서는 황다애(영어영문학과)양이 수석을, 박지은(일어일문학과)양이 차석을 차지했다. 학위수여식에서 김기섭 총장은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출발선상에 선 졸업생들에게, "끊임없는 자기연마로 각자의 영역에서 전문성과 성실함을 겸비"하고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휴머니즘과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실천해 줄 것과 "희망의 시대를 선도하는 주역"이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 2013학년도 신입생 입학식

2013학년도 신입생 입학식이 3월 4일(월) 오전 10시, 경암체육관에서 열렸다. 교가 배우기, UCDC(댄스동아리) 공연 등의 식전 행사에 이은 입학식에서 김기섭 총장은 신입생들에게 "원대한 꿈을 설정하고, 성실한 자세로 학업에 매진하여 글로벌 시각과 세계시민의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견문을 넓히는 데 노력해 줄 것"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배려하고 나눌 줄 아는 따뜻한 심성을 지닌 통섭형 인재로 성장해 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2013학년도 신입생 최종등록 결과 4917명의 학부생이 입학했으며, 그 중 인문대학 소속 신입생은 443명이다.

## 인문대학—일본 교토산업대학 간 국제학술교류협정 체결

부산대학교 인문대학과 일본 교토 산업대학은 2013년 3월 11일 양교의 학술 발전을 촉진하고 우호적 협력관계 증진을 위한 국제학술교류협정을 맺었다. 이 협정을 통해 양교는 '공동연구' , '학생 및 교직원 교환' , '교육문화프로그램 공유'등을 도모하기로 하였다. 협정서에는 김성진 인문대학장, 후지오카 이치로 교토산업대학장이 각각 서명했다.

## 2012학년도 전기 인문대 박사학위자(11명) 명단

| 송철호(국어국문학과) 「戰亂傳의 인물형상과 서술양상 연구」 (지도교수: 이헌홍)
| 조수미(국어국문학과) 「조선후기 한글 유배실기 연구」 (지도교수: 한태문)
| 김국희(국어국문학과) 「할미의 놀이와 이야기, 그 원형의 계승과 변이양상 연구」 (지도교수: 이헌홍)
| 고혜림(중어중문학과) 「북미 화인화문문학에 나타난 디아스포라 문학적 특징 –白先勇,於梨華,張系國,聶華苓을 중심으로–」 (지도교수: 김혜준)
| 김동연(영어영문학과) 「영한 번역 텍스트에 나타나는 주제구조의 특성 연구」 (지도교수: 안동환)
| 임어경(영어영문학과) 「Semiotic Translations of Possession: Multidimensionality of Its Embodiment 」 (지도교수: 김용규)
| 조운익(영어영문학과) 「The Role and Translation of Animal Metaphor in Discourse: A Relevance Perspective」(지도교수: 이상도)
| 김문희(사학과) 「何香凝의 정치활동과 사회인식」 (지도교수: 최덕경)
| 이진옥(사학과) 「18세기 영국 블루스타킹 서클」 (지도교수: 곽차섭)
| 김명주(철학과) 「질 들뢰즈의 잠재성의 철학에 대한 연구」(지도교수: 문성원)
| 박진일(고고학과) 「韓半島 粘土帶土器文化 硏究」(지도교수: 신경철)

## 2013년도 단과대학 주요업무보고

3월 12일(화) 오후 2시부터 인문관 회의실에서 인문대학 학장과 부학장, 그리고 각 학과장은 총장과 본부 보직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3년도 단과대학 주요업무보고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기섭 총장은 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 학생 취업률 등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지표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하였으며, 인문대학은 전임교원 충원, 대학원생 지원방안, 미리내계곡 환경정비 등을 건의하였다.

## 인문대학 취업지원센터 운영

인문대학은 졸업생 취업률 향상을 위하여 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인문관 304호에 위치한 취업지원센터에 4월부터 매주 수요일 취업전문상담사가 근무하면서 취업 특강, 1:1 취업컨설팅, 취업동아리 활성화 등의 프로그램을 6월말까지 운영하며 2학기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취업전문상담사는 미래인력개발원의 지원으로 2012학년도부터 인문대학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작년 한해 144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1:1 취업컨설팅을 하였다.

# 과거인과 대면(對面)하기,

## 일제 강점기 한 지성의 '낯선' 행로를 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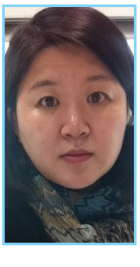
김남이

지난 몇 년간 문득문득 나의 호기심을 일으킨 사람이 있다. 일제강점기의 사회주의자로 알려진 최익한(崔益翰:1897~?)이다. 대체로 최익한의 삶은 한학(漢學)–사회주의 이론/활동–조선학 연구–해방 후 월북이라는 키워드로 정리된다. 『실학파와 정다산』(1955)이라는 역작 외에, 최익한은 잘 알려진 인물은 아니다. 나 또한 '연암 박지원'이라는 고전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왔는지 살피는 과정에서 일제강점기 연암 연구자 중의 한 사람으로서 처음 접했다. 최근, 그의 생애가 파문(破門)과 변절(變節), 환생(還生)과 같은 말들로 표현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파문이니 변절이니 하는 말들이 과격하여 과장의 혐의가 없을 수 없었다. 그러나 최익한이라는 인물, 좀 더 넓게는 근대 초기의 지성이 거쳤을 지적 행로를 쉽게 그어진 직선으로 너무 순연(順然)하게 받아들이고 만 것은 아닌가, 의심이 생겼다. 그의 삶을 상징하는 몇 개 키워드가 이미 제시되어 있음에도 여전히 흐릿하게 느껴졌던 이유가 분명해지는 순간이기도 했다.

'파문'은 유학을 공부하다가 이른바 "주자(朱子)를 배격한 죄안(背朱之罪案)"에 이름을 올린 일에서 비롯된 말이었다. 20대 초반까지 최익한은 면우(俛宇) 곽종석(郭鍾錫) 문하로서 경남 거창에 있는 스승의 거처[茶田]에서 공부하고 있었다. 예의 파문은, 당대 최고의 유학자였던 간재(艮齋) 전우(田愚)를 만나고, 그에게 보낸 편지 때문이었다. 요컨대 최익한은 견결한 보수적 유학자 간재에게 성리설에 관한 질문을 '7천 자'짜리 글로 쏟아냈던 것이다. 그 글에서 유학자들이 공격해 온 양명학의 '마음은 이(理)이다'라는 명제를 전면에 세웠던 것은 정면의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선택이었다. 간재는 최익한의 주장을 '성학(聖學)의 거룩한 계보와 주자의 설을 불신하고 양명학의 학설에 부합하는 이단이다'라고 심하게 비판했다. 예상 못할 비판은 아니었다. 최익한이 전라도로 간재를 만나러 간 것은 그렇다 해도, 다시 장문의 편지를 보내 토론을 일으킨 것은 간재와 이론적 결전(決戰)을 벌이려는 의도로 읽힌다. 아마 최익한은 식민치하의 현실을 치욕스럽다 여기고 스스로 격리하며 '섬'에서 '유교 세계의 재건'을 기획하던 간재에게 그 기획의 원리가 되는 유학의 의미를 묻고 싶었던 듯하다. 간재 학파가 말하는 이(理)가 무력하고, 허무하다는 비판도 서슴없이 했다. 파문을 다시 상기하자면, 간재의 경우, 그 문하에 든 것이 아니었으니 비판은 받았지만 파문이랄 것은 없다. 면우가 최익한을 파문한 것도 아니다. 이 파문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이 일이 있은 뒤, 최익한은 거처를 얻어 스승 곁에서 계속 공부하려던 계획을 바꾸어 서울로 갔다. 스승의 권면도 있었다 하지만, 주자 묵수(墨守)의 강고한 세계와 부딪치며 얻은 좌절과 낙인은 그 세계를 깨고 나오는 힘이 되었다. 이 파문은 한학으로 상징되는 전통 세계에 대한 종언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에게 전통의 문화 자산은 월북 이후까지 계속되는 탐구의 대상이었다. 결과를 놓고 보자면 중세의 유산을 근대 학문 체계에 배치하고 의미부여하는 방식은 같은 사회주의자였던 김태준이나 홍기문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정교하다.

최익한이 궁극으로 선택한 자기의 이념은 사회주의였다. 일본 유학 시절 사회주의 이론을 접했고, 이내 '설전필전(舌戰筆戰)에서 적수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그 이론을 받아들였다. '변절'이라는 말은 그가 포함된 그룹의 운동 방향에 대한 사회주의 내부의 발언이다. 그는 민족대연합의 운동이 현실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이를 위해 당시 조선에 산재하던 수백 개 사상단체를 해체하는 흐름에 적극 동조했다. 잘 알려진바 신간회의 성립 과정과 연결된 일이다. 최익한은 사상단체의 해체라는 국면이 '조선 고유의 현실, 절박한 사정에서 기인한 것'임을 거듭 말했다. 그 필요성과 의미를 역설하는 글에서 최익한은 '사상의 왕국에서 현실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시종여일한 착목점은 현실, 곧 조선의 특수한 현실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1927년 코민테른으로부터 '복본주의(福本和夫)에 투항하며 좌익적인 수사(修辭) 아래 지주·친일파와 결탁한 우익 기회주의'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복본주의는, 최익한의 사회주의의 '스승'이라고 일컬어지는 복본화부(福本和夫)의 사회주의 이념을 가리킨다. 코민테른이 '섹트주의'라고 비판적으로 규정한바, 자기(민족/국가)의 특수성에 경도되어 사상적 예각을 무디게 하는 것이라며 국제적으로 비난받았다. '변절'이라는 말은 이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보편적 역사발전을 설계하며 계급 간의 국제적 연대를 중시하던 코민테른의 주의와, 식민치하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회주의를 이론적 무기로 받아들였던 조선의 특수한 현실이 내부에서 부딪친 것이다.

최익한은 자신의 현실과 이념의 강고함이 부딪칠 때, '사상의 왕국에서 현실로' 나오기를 선택했다. 사회주의 이론가로서의 철저함에 다소 매혹되어 있던 나로선 한편 아쉬움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은 그저 후대인의 물색없는 감상일 뿐이다. 조선의 해방에 대한 염원이 그토록 절실했음을 믿어보는 것 또한, 다른 인간으로 '환생'한 듯 모습을 바꾼 그의 삶에 오히려 정직하게 대면하는 길일 수도 있겠다. 그러다 보면 다른 과거인과도 더 대면할 수 있을 것 같다.



필자 : 부산대학교 인문대학 한문학과 교수
조선전기 한문학, 한문학연구사 전공

## 국어국문학과

국어국문학과의 2012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이 2월 22일(금)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인문관 411호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졸업식에는 2011년도 후기 학사 및 석사 졸업생 20명과 2012년도 전기 학사 및 석·박사 졸업생 40명을 비롯하여 학부모, 친척 등 많은 내외귀빈이 참석하였다. 참석한 모든 졸업생들에게 학과장이 일일이 졸업장을 수여했고, 국어국문학과 07학번 설승환 졸업생과 09학년 김지경 졸업생이 국어국문학과 동문회장상을 수상하였다.

## 중어중문학과

중어중문학과에서는 1월 6일(일) 강식진·서정희 교수의 인솔 하에 학과전공 및 부·복수전공 학생 26명이 학과단위 학생해외파견 프로그램으로 상해화동사범대학으로 출국하여 1월 25일(금)에 돌아왔다. 3주 동안 중국어연수 및 다양한 문화체험 활동을 통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였다. 정규학기 프로그램은 2월 20일(수) 중어중문학과 학생을 포함하여 복수전공자 총 8명이 출발하였는데, 2013년 7월 5일(금)까지 수학하고 7월 6일(토) 귀국할 예정이다.

## 일어일문학과

일어일문학과는 만남과 헤어짐의 시간인 봄을 맞이하여 다양한 행사를 마련하였다. 2월 14일(목)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및 수강신청 후 풋풋한 새내기들과 첫 만남의 자리를 가진 것을 시작으로, 2월 15일(금)~16일(토)의 예비대 MT, 3월 15일(금) 새또맞이로 신입생들이 한층 친숙한 분위기 속에서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게 하였다. 2월 22일(금) 졸업식에서는 14명의 졸업생이 사회 초년생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였다. 3월 21일(목)에는 일본연구소와 일어일문학과 공동으로 일본학 초청강연회를 개최했다. 일본 교토 산업대학의 요시노 슈지(吉野秋二) 교수가 「정관지진과 동일본 대지진」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였는데, 2011년도에 발생한 동일본대지진과 관련하여 정관지진의 유물을 통해 일본 지진의 역사와 영향을 고찰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 영어영문학과

영어영문학과에서는 3월 30일(토)~31일(일)에 걸쳐 경주 신라유스호스텔에서 2013학년도 학부 신입생환영회를 개최하여 학부 신입생들과 재학생, 교수님들과 졸업생들의 친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 불어불문학과

불어불문학과에서는 3월 22일(금)~23일(토) 산성에서 새내기와 복학생들을 환영하는 행사를 가졌다. 이를 통해 학생들 간의 유대감을 높여 학교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동학과의 윤애선 교수는 3월 23일(토) 오후 4시 한글회관 강당에서 한글학회가 주관한 "제13회 우수논문상"을 수상하였다

## 독어독문학과

독어독문학과에서는 2월 12일(화)~28일(목) 동학과 원어민 강사와 독어교육과 원어민 강사를 초빙해 독일 Aachen대학으로 파견되는 학생들을 위한 독일어 수업을 진행하였다.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독일어는 물론, 독일문화와 생활에 대해 집중적으로 배울 수 있었다. 3월 29일(금) '오마이랜드'에서 독어독문학과 신입생·복학생 환영회가 개최되었다. 신입생, 복학생, 재학생 외에 학과 교수들과 강사들, 졸업생까지 약 60명이 참석하였다. 학생회 장기자랑, 13학번 새내기 장기자랑 및 FG(Frau Germanistik: 여장남자 콘테스트) 등 다양한 공연이 진행되었다.

## 노어노문학과

노어노문학과는 2월 1일(금), 13학번 새내기들과 선배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신·구대면식을 하였다. 2월 27일(수)~28일(목) 거제도에서 열린 인

문대 새내기 배움터에서는 돌풍노문답게 인문대에 즐거운 돌풍을 일으켰다. 새내기들은 대학생활의 많은 것들을 배웠고, 다른 과 학우들과 어울려 재미있는 게임도 즐겼다. 노문과 자체의 "클럽 스파시바" 는 노문과 새내기들이 더욱 친해지는 계기가 되었다. 3월 22일(금)~23일(토) 경주에서 열린 신입·복학생환영회에는 신입·복학생은 물론 교수 및 여러 선배들이 참석하였다. 그로써 선·후배들이 서로 친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고, 교수와의 대화를 통해 신입생들이 진로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무엇보다 신복환은 신입생·선배·교수들이 함께하는 자리를 만들어 "하나 되는 노문과"를 만드는 밑거름이 되었다.

## 한문학과

한문학과에서는 2월 20일(수) 신입생들을 위한 예비대학을 실시하였다. '간다놀이'와 '자기소개' , '장기자랑' 등을 통해 선후배들이 얼굴을 익히고 캠퍼스 이곳저곳을 알아보는 뜻 깊은 자리였다. 3월 8일(금)~9일(토) 경남 산청일대에서 춘계답사 겸 신입생환영회를 가졌는데, 남명기념관과 산천재 등 산청일대의 문화 유적지를 답사하고 저녁에는 신입생환영회 행사를 개최하였다. 행사 후 선배와 후배, 교수들이 함께 학교생활, 진로, 교우관계 등 수업 시간에 갖지 못했던 간담회 시간을 마련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한 해를 시작하며 한문학과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해의 단합을 다지는 소중한 자리였다.

## 언어정보학과

언어정보학과는 2월 22일(금) 전기 학위수여식을 했다. 13명의 졸업생들과 2명의 석사졸업생이 참석했고 학생들의 졸업을 축하하기 위해 가족들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권연진 학과장이 학생들에게 일일이 졸업장을 수여했고, 재학생 김단희 학생의 송사와 졸업생 김연대 학생의 답사가 이어졌다. 졸업생들에게 김인택 교수와 권연진 교수가 축사를, 권순복 교수와 김태호 교수가 합동 축하공연을 선사하였다.

3월 22일(금) 양산 솔밭휴양림에서 열린 1박2일의 신입생환영회에서는 60여명의 신입생과 재학생, 졸업생 그리고 교수들이 참석하여 친목을 도모하고 추억을 만들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 사학과

사학과는 2월 22일(금) 학위수여식에서 박사학위 2명·수료 1명, 석사학위 1명·수료 3명, 학사학위 16명을 각각 배출했다. 학과교수들의 우수한 지도와 학과의 전폭적인 지원에 개인의 노력이 반영되어 이번 학위수여자들은 높은 성취와 훌륭한 연구결과를 낳았다. 졸업생들은 전문성을 가지고 앞으로의 진로와 더 높은 학업성취를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전하였다. 3월 4일(월) 입학식에서는 역사탐구와 학문수양에 대한 의욕은 물론, 선배들과의 교류와 즐거운 캠퍼스 생활에 대한 기대감을 보이는 34명의 새로운 사학인들을 맞아 학과발전 전망을 보았다.

사학과의 수많은 행사 중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정기답사가 3월 26일(화)~29일(금) 전라도 일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답사를 통하여 평소 책이나 사진으로만 보던 문화유산을 실제로 답사하여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학업성취도를 높이고 교수·학생·선후배간의 교류와 친분을 쌓는 계기가 되었다. 참가학생들은 전라도의 아름다운 풍광과 위치하고 있는 문화재들을 직접 답사하면서 마음의 근심과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앞으로의 학업에 대한 목표를 세우고 다짐을 했으며, 따스한 봄날의 전라도를 느끼며 추억과 희망을 가지고 돌아왔다고 말했다.

## 철학과

철학과는 4월 2일(화)~6일(토) 제주도 답사를 다녀왔다. 4·3을 주제로 한 이번 답사에는 교수 9명과 학부생 59명이 참석하였고, 4월 3일(수) 제주대학교에서 제주대학교 철학과와 연합세미나를 마련했다. 제주대학교 윤용택 교수는 강연을 통해 4·3에 대한 평가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며 이 사건이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알렸다. 이어 부산대학교 철학과 학생이 "민주주의 내에서 인민의 의지는 구현 가능한가"라는 주제의 발표를 했으며, 제주대학교 철학과 학생은 "장자의 사상에서 살펴본 4·3"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세미나를 마치고 4·3 유적지를 살펴보면서 4·3이 가진 철학적 의미를 탐색하고자 노력했다.

## 고고학과

고고학과에서는 1월부터 2월까지 학부생 5명이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부산대학교박물관에서 현장실습을 하였다. 3월 15일(금)~16일(토) 산성에서 열린 개강총회 및 신입·복학생 환영회에는 교수와 학생 및 대학원생이 한자리에 모여 선후배간의 정을 돈독히 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3월 26일(화)~28일(목) 충청도 일대로 다녀온 고고학과 춘계 답사에는 교수 및 대학원생 총 96명이 참가하였으며, 부여 나성, 국립 공주박물관 등 주변의 주요 유적 및 박물관을 답사하였다.

## 인문학연구소

인문학연구소의 문화학교에서는 2월 20일(수)~22일(금) "세계시민주의"와 "디아스포라"를 주제로 한 강연회를 열었다. 제31차 연구단 학술발표회는 2월 28일(목)에 있었고, 125회 인문학담론모임은 3월 21일(목)「 '여성의 몸, 남성의 맘' – 인도의 사례, 그리고 사유」라는 강연으로 열렸다. 3월 8일에서 4월 26일까지 매주 금요일에는 '희망의 인문학'관련 대중강좌가 개최되었으며, 3월부터 10월까지 매달 넷째 월요일 오후에는 '동서양 인문학 산책' 이라는 제하에 대중강좌가 릴레이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동연구소와 해운대구, (사)세계시민사회센터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기관 상호교류 협력과 유기적 네트워크 구축으로 인문학도시 해운대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서를 3월 29일(금) 체결했다. 내용은, 2012년 '동서양의 인문학 산책' , '역사의 향기를 찾아서' , 해운대 플랜, 인문고전 100권 선정 등의 공동추진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2013년에도 동일한 맥락의 강연 및 탐방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인문고전 읽기 운동을 공동전개하기로 하였다. 나아가 해운대를 중심으로 생활 속에서 다양한 인문학의 기회를 접하고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창의적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 한국민족문화연구소

한국민족문화연구소의 학술지「한국민족문화」46집과 로컬리티 번역총서인 L8『로컬 히스토리/글로벌 디자인』(에코리브르) 발간되었다. 한민련의 학술행사로서, 제6회 국내학술심포지엄「차이의 정치와 윤리」, 오사카시립대학과 세 번째로 공동주최한 학술심포지엄「금현대의 도시하층–역사성과 현대성」, 제5회 국제학술심포지엄인「(트랜스)로컬리티, 경계를 재사유하다」도 1월에서 2월에 걸쳐 마련되었다. 또한 동연구소에서는 윤리교육과 조남욱 교수가 담당하는 2013년 1~2학기 평생교육원 서당을 개설하였다.

## 점필재연구소

점필재연구소는 3월 21(목)~24(일) 인문한국 "고전번역+비교문화학" 연구사업의 일환으로서, 산동성 위해시 산동대학교 한국어학과와 위해시 한인경제인연합회(한인상회) 등의 요청과 지원을 받아 "제3회 해외 한인 및 한국학 전공자를 위한 한국고전강좌—부산대 점필재연구소 인문고전강좌: 한국의 고전, 세계와 通하다"라는 제목으로 위해 거주 한인 청소년, 학부모, 산동대학교 한국어학과 재학생 등과 함께 한국인문고전 강연을 실시하였다. 점필재연구소의 연구 성과와 역량을 일반대중, 특히 한국고전을 접할 기회가 지극히 제한되어 있는 해외 청소년은 물론 중국 현지 한국학 전공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알차고 의미 있는 자리였다. 점필재연구소 소장 정출헌은「동아시아 문명교류의 현장, 飜譯과 反逆: 〈삼국지연의〉를 중심으로」, 점필재연구소 HK교수 신상필은「연암 박지원이 연행길에 들려주는 이야기 두 가지: 〈허생전〉과 〈호질〉」, HK연구교수 김용철은「동아시아 문명교류의 현장2, 15세기 東亞地中海: 崔溥의 〈漂海錄〉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한국의 고전과 역사를 강연하였으며, 인문한국 사업의 대중적 확산을 세계적으로 도모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

## 이용관 동문(영문 79), 대전문화예술의전당 관장 임용

대전시는 대전문화예술의전당 관장(개방형직위 4급 상당) 공개 채용시험에서 한국예술경영연구소장인 이용관 동문이 최종 합격했다고 발표했다. 이용관 동문은 중앙일보 문화사업부장, (재)부천문화재단 전문위원, 안양문화예술회관장 등을 역임했으며 4월 1일부터 대전 문화예술의 전당 관장에 임용돼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 홍성복 동문(철학 76), 교총과 M.O.U 체결

(좌로부터 홍성복 동문, 부산교총 강영길 회장)

웨딩주얼리 브랜드 (주)트리샤 대표인 홍성복 동문은 부산광역시 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영길)와 지난 2월 14일 M.O.U를 체결했다.

## 허탁 동문(국문 69), 스토리텔링 관련 저서 발간

금정산 지킴이로 유명한 허탁 동문이 사회·문화 전 영역에서 널리 사용되는 스토리텔링의 정의를 명료하게 정리한 『스토리텔링의 비평적 고찰』(허탁 지음, 해밀커뮤니케이션, 2013)이라는 책을 펴냈다.

## 하영삼 동문(중문 80), 중문과 왕평 교수와 공동저서 발간

경성대학교 한국한자연구소장인 하영삼 동문과 부산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왕평 교수(중국 화동사범대)가 공동으로 주편한 한자문화권 한자연구 총서(한국편) 1차분 7종 6책이 2012년 12월 31일 중국의 1급 출판사인 상해인문출판사에서 정식 출판됐다고 경성대학교가 밝혔다.

## 윤애선 교수 한글학회 우수논문상 수상

불어불문학과 윤애선 교수가 한글학회 제13회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한글학회는 2012년도에 발행한 학회지 『한글』에 발표된 논문들을 대상으로 심사한 결과, 윤 교수의 「한국어 어휘 의미망 KorLex 2.0」 연구를 우수논문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윤 교수가 개발한 '한국어 어휘 의미망 KorLex'는 한국어 어휘 약 15만 개의 의미를 네트워크화한 것으로, 기계 통번역, 의미 검색, 음성인식 등 한국어자동처리 분야의 기술력을 크게 향상시키는 데 필수적인 언어자원이다. 또한, 영어 워드넷(WordNet)과 연계해 40개 언어의 의미를 교차 검색할 수 있어 다국어 자동 처리에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매년 다수의 국내·외 기관이 기술 실시를 요청하고 있다. 특히 이번 논문에서 연구된 KorLex 2.0 버전은 한국어 통사분석에 필요한 세부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다른 언어 어휘 의미망의 모델이 되고 있다. 한편, 시상식은 3월 23일(토) 한글회관 얼말글 교육관에서 개최되었다.

## 교수 연구년 및 국외파견

국외파견

박형섭(불어불문학과) | 프랑스 꼴레쥬드프랑스, 1년((2013.3.1~)
권순복(언어학과) | 미국 메인대학교, 1년(2013.3.3~)
임상택(고고학과) | 미국 오리건대학교, 1년(2013.1.21~)

연구년 B

한태문(국어국문학과) | 일본 광도대학, 1년(2013.4.1~)
서정희(중어중문학과) | 1년(2013.3.1~)
김옥영(일어일문학과) | 1년(2013.3.1~)
윤화영(영어영문학과) | 1년(2012.9.1~)
김종수(독어독문학과) | 미국 듀크대학, 1년(2012.9.1~)
채상식(사학과) | 1년(2013.3.1~)
박준건(철학과) | 1년(2013.3.1~)

## 교수동정단신

| **김혜준** 교수(중어중문학과)는 3월 22일(금)~25일(월) 중국에서 열린 제5회 세계중국학포럼 참석하여 논문발표를 하였다.

| **서정희** 교수(중어중문학과)는 1월 6일(일)~9일(수) 해외파견(계절학기) 학생들 인솔 차 중국 상해화동사범대학을 방문하여 양교간의 협력 관계 구축에 관한 협의를 하였다.

| **김용규·배만호·정병언** 교수(영어영문학과)는 1월 18일(금)~2월 2일(토) 「BK21 영상산업 번역전문인력 양성사업단」 연수팀을 인솔하고 영상번역관련 실무능력향상을 위한 호주 해외연수 프로그램에 참가하였다.

| **박형섭** 교수(불어불문학과)는 1월 23일(토)~2월 2일(토) 인도에서 열린 「2013 국제 문학 심포지움」에 참석하여 논문발표를 하였다.

# 교수동정/신간소개

| **정출헌** 교수(한문학과)는 3월 21일(목)~24일(일) 제3회 해외 한인 및 한국학 전공자를 위한 한국고전강좌를 위해 중국에 다녀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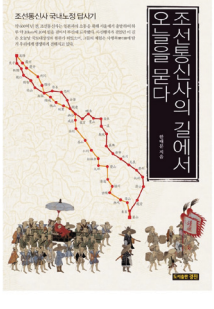
| **이수훈** 교수(사학과)는 2월 15일(금)~20일(수) 중국에서 열린 부산대학교 교수회 동계 연수 및 세미나에 참석하여 광서사범대학, 염성사범대학 등 지역 거점 대학 방문 및 현장탐방을 하였다.

| **최원규** 교수(사학과)는 1월 28일(월)~2월 2일(토) 일본 관서지역의 조선관습자료 현황파악 및 자료 수집을 위한 방문조사를 하기 위해 일본에 다녀왔다.

| **최우원** 교수(철학과)는 3월 3일(일)~9일(토) 인도의 자와할랄 네루 연구소(Jamia Millia Islamia 대학교)에서 개최하는 국제학술대회에 초청받아 논문을 발표하였다.

| **배진성** 교수(고고학과)는 2월 15일(금)~17일(일) "일본열도 초기농경문화의 담당자 연구" 공동연구 발표에 따라 「열도에 있어서 초기도작의 담당자는 누구인가」 심포지엄에서 발표를 하기 위해 일본에 다녀왔다.

## 신간소개




### 『조선통신사의 길에서 오늘을 묻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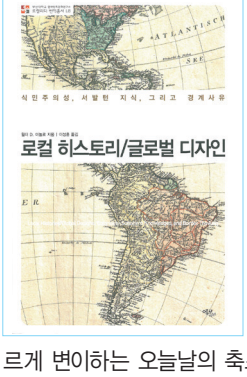
한태문 지음,
서울: 도서출판 경진, 2013

국어국문학과 한태문 교수는 조선통신사가 우리 땅을 지나간 발자취를 답사해 『조선통신사의 길에서 오늘을 묻다』라는 책으로 펴냈다. 저자는 지명과 누각, 고을의 이름 등 사행록 속 단서를 하나하나 찾아내 조선통신사가 한반도 땅에 남긴 숨결을 고스란히 되살렸다. 한 교수는 그동안 조선통신사와 관련된 일본 지역에 관한 답사기는 넘쳐나는 데 반해 정작 국내노정 답사기는 찾아보기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약 2년여에 걸쳐 답사를 다니면서 그 기록을 조선통신사문화사업회에서 계절마다 간행하는 저널에 연재를 하였는데, 이 책은 추가답사를 통해 이를 보완하고 다듬어 엮어낸 것이다. 이 책은 현황파악조차 안 된 조선통신사 관련 국내유산을 발로 뛰며 1차적으로 정리한 보고서라 할 수 있다. 서울에서는 조선통신사가 왕명을 받들던 창덕궁 희정당부터 가족과 눈물 흘리며 이별하던 한강 나루, 양재역에 남은 표지석 등을 찾아간다. 이어 용인의 주막, 충주 탄금대, 문경새재의 구름길, 낙동강 관수루, 부산 태종대에 이르기까지 조선통신사의 발걸음을 생생하게 재구성했다. 한 교수는 통신사 행록 등의 기록에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 곳이라면 구석구석을 찾았다. 이 저서는 통신사의 국내 노정에 관한 연구와 관심을 촉발시키는 도화선으로서 의미가 깊다.

### 『근-현대 중국사: 제국의 영광과 해체 (상권)』
### 『근-현대 중국사: 인민의 탄생과 굴기 (하권)』

이매뉴얼 C. Y. 쉬 지음,
조윤수·서정희 옮김, 서울: 까치글방, 2013

중어중문학과 서정희 교수는 『근-현대 중국사 상·하권』을 우리말로 옮겨 내놓았다. 이 책은 1997년의 홍콩 반환과 1999년의 마카오 반환으로 제국주의의 잔재까지 청산한 현대 중국이 마오쩌둥 이후 덩샤오핑 체제 하에서 21세기의 세계2강 슈퍼 파워로 성장해가는 과정을 명시하고, 중국-타이완의 통일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고 있는 그야말로 살아있는 역사서이다. 이 책의 장점은 중국사가 전근대의 전통사회에서 근대사회로 진입하는 전환기를 개관하고, 현대를 향하여 굴기하는 세계사 속에서의 중국의 위치를 확인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성과 위에서 방대한 자료를 중심으로 변화의 양상을 변화의 요인, 진행 과정, 파급 효과 및 문제점 등에 이르기까지 날카로운 역사인식으로 재구성하고 있다. 저자는 중국과 타이완에서 출간된 자료 이외에도 서양과 일본에서 이루어진 학술적 성취와 토대 위에서 중국사 연구의 한 획을 긋는 역작을 세상에 내놓았다.




### 『로컬 히스토리 / 글로벌 디자인』

월터 E. 미뇰로 지음, 이성훈 옮김,
서울: 에코리브르, 2013

한국민족문화연구소는 『로컬 히스토리 / 글로벌 디자인』을 경성대학교 철학과 이성훈 교수의 옮김으로 출간하였다. 저자는 라틴아메리카 연구에서 매우 혁신적인 학자 중 한 명인 월터 미뇰로인데, 권력의 '식민주의성'에 대해 확장한 논의를 보여준다. 경계가 흐릿하고 빠르게 변이하는 오늘날의 축소형 세계에서 서양/동양, 선진국/저개발국 등의 이분법이 현재 실행되고 있는 사회과학과 지역 연구에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그는 지적한다. 그러면서 근대 식민세계 연구에 '식민주의적 차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을 도입한다. 또 새로운 지식 형태들의 등장을 추적하며 이를 '경계사유'라 일컫는다. 나아가 신세계의 학계에서 사용되는 용어들과 관심사들을 동원하여, 이미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포스트콜로니얼리즘 연구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논쟁들의 지평을 확대한다.